



조항진 장로(장로중보기도회 대표)가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릴레이기도를 하고 있다.

“중보기도로 고난을 함께 이겨냅시다!”

장로중보기도회, 나라와 민족, 교회 위한 릴레이기도회 시작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 시간 동안 중보기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교회의 모든 예배가 영상예배로 전환되었고,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큰 위기 앞에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 온누리교회 장로기도회가 그 해답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온누리교회 장로기도회가 지난 8월 27일(목)부터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한 릴레이기도를 시작했다. 교회의 어른들이 솔선수범해서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

주고 있다는 평가다.

온누리교회 장로중보기도회 릴레이기도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세 시간(오전 8~9시, 오후 1~2시, 오후 7~8시) 동안 이어진다. 장로중보기도회 소속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중보기도 한다. 수요일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중보기도 한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위생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하게 중보기도 하고 있다.

장로중보기도회 릴레이기도는 먼저 회개기도를 한 다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 한국교회와 온누리교회를 위한 기도, 온누리교회 협력기관(CGNTV, NGO 더멋진세상, 한동대학교 등)을 위한 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항진 장로(장로중보기도회 대표)는 “지금은 교회와 성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중보기도 해야 할 때”라며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 되어 지금의 고난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세상에 제공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에스라 프로젝트 필사지 제출기한 연장

9월 27일까지 순장 및 총무에게 제출

온누리공동체 성경필사 ‘에스라 프로젝트’ 필사지 제출기한이 8월 30일(주일)에서 9월 27일(주일)로 연장된다.

에스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분량을 완료한 필사지를 9월 27일(주일)까지 공동체 순장이나 총무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동체 소속이 안 된 성도나 교역자 및 장로, 예수제자학교(JDS)는 9월 27일까지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각 공동체 총무들은 성도들이 제출한 필사지를 성경 한 권으로 취합해서 10월 11일(주일)까지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에 제출하면 된

다. 에스라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성도 개인의 영성관리 및 공동체 연합을 위하여 국내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공동체별로 성경 1권(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1,189장)을 필사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7월 5일부터 시작했다.

문의: 서빙고 02-3215-3744, 3263

양재 02-570-7356, 7918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전신장애인 박우형 장로의 신앙고백

나 비록 육신의 자유함을 잃었으나
구세주 예수님을 만났네

그리고 바라던 가정의 행복은 깨졌지만
신실한 믿음의 식구를 얻었네

인간적으로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네

이 세상사는 동안
전신마비라는 장애를 안고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섬기고 감사하며 살리라

* 박우형 장로는 젊은 시절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장애인이 됐다. 구필화가로 활동했었다.

2020 하반기 양육 온라인 실시

온라인 실시간 강의(ZOOM)

하반기 양육 과정이 온라인으로 개강한다. 하반기 온라인 양육 과정에는 공동체 OBC, 캠퍼스별 사역팀 과정, 전 캠퍼스를 위한 특강(가정과 직장에서의 영성 실천)이 개설될 예정이다. 수강신청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하반기 양육과정 진행방식은 대부분 온라인 실시간 강의(ZOOM)로 진행되고, 일부 강의만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공동체 OBC와 사역팀 강의는 공동체 양육총무와 사역팀을 통해 접속 URL을 받으면 된다(아이스쿨 신문 참조). 전 캠퍼스를 위한 2학기 특강은 온누리교회 양육본부 유튜브 채널에서 수강할 수 있다.

전 캠퍼스를 위한 2학기 특강은 가정과 직장에서의 영성실천이 목표다. 모두 8개(지혜로운 창조신앙, 다음세대 자녀교육, 온누리 전도학교, 돈 'Money Matters to God', 성경적 가정관, 공감과 소통, 크리스천 리더십코칭, 그리스도인의 결혼) 과정이 열린다. 전 캠퍼스를 위한 2학기 특강은 수강신청이 마감되어도 청강할 수 있다.

문의: 아이스쿨, 양육신문 참고

/ 정현주 기자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이슬람의 코란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한다. 심지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죄가 없음을 인정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린 것과 '메시아'라 불린 것이 기록되어

있고,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기적을 행했으며, 육신의 상태로 승천한 것까지 기록되어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대속과 육체의 부활 등 예수님의 신성과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하지만,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특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슬람에서는 알라의 계시를 받아서 코란을 구술한 최고의 예언자 무함마드를 예수님을 포함한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높은 위치에 두고 있다. 그러나 무함마드를 높이 받드는 근거는 불명확하다. 사실 무함마드는 코란에 몇 차례 등장하지 않는다. 또 앞에 말한 예수님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특성은 찾을 수 없다. 무함마드의 행적을 기록한 여러 하디스들에서 무함마드는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성품들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무함마드를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예언자'라고 칭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위대한 선지자라 주장한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신약성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 유대와 로마의 역사서에도 나와 있다. 이 기록은 예수님 생전에 현장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기록되었다. 반면 무함마드에 대한 가장 빠른 전기도 무함마드 사후 200~25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다. 무함마드에 대한 첫 전기의 서문에는 위대한 선지자에 대해 부끄러운 내용이나 실망스럽다고 여기는 기록들은 모두 생략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모슬렘들은 코란이나 하디스 등 그들의 경전을 직접 읽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부분은 종교지도자나 그의 지도를 받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수받는다. 그 과정에서 윤색된 기록들을 바탕으로 지도자나 어른들에 의해 전설과 같은 무용담을 가진 흠 잡을 데 없는 완벽한 선지자로 추앙받게 된다. 모슬렘이 자랑스럽게 기억하는 무함마드는 그들 경전에 기록된 사람과 전혀 다른 가상의 인물이다.

이슬람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성경의 불완전성을 강조한다. 성경은 원본이 없고 수많은 사본과 각 언어로 번역된 번역본이 너무 많아서 진정한 신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반면 이슬람의 코란은 유일한 원본이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신의 말씀을 가진 것은 이슬람뿐

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모슬렘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코란은 23년 동안 무함마드가 알라에게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이다. 그러나 처음 계시를 받았을 때 바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나중에 자신이 기억하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암송하도록 시켰다. 같은 내용을 어떤 사람에게는 다르게 말하기도 했다. 장기간에 걸쳐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모든 계시를 일관되게 암송시킬 수 없어서 여러 지역 많은 사람들이 다른 부분을 나누어 암송하고 있었다.

초대 칼리파(정치와 종교 지도자)인 무함마드가 죽은 후 2대 칼리파는 암송으로 전해오던 코란을 기록해 둘 필요성을 느낀다. 하피즈(코란 암송자) 중 한 사람인 자이드에게 흠어져 있는 여러 하피즈들이 부분적으로 암송하고 있는 코란 내용을 수집하여 기록하라고 명령한다. 자이드는 코란을 수집하면서 많은 하피즈들의 기억력이 불완전함을 기록해 두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부분을 다르게 암송하고 있던 하피즈들 사이에서 서로 자기의 것이 옳다는 분쟁이 지속되었다. 그래서 3대 칼리파인 우스만은 위경의 출현을 우려하여 코란 표준화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그는 자이드가 수집하여 보관 중이던 사본을 재정비하고 교차 검토하여 모든 이슬람 지역에 한 종류의 코란을 배포한다. 그리고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그 외의 코란이나 관련된 자료는 모두 태워버린다.

코란은 불완전한 사본들 중에서 하나만 남기고 다른 것들을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유일한 원본이 된 것이다. 반면 성경은 많은 사본들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 오히려 완전성을 보증하는 증거이다. 성경은 그 자체만으로 내용의 전달이 명확하여 평범한 사람도 성경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자체적 완전성과 명확한 연결성을 가지는 반면, 코란에 기술된 성경의 내용은 의미전달이 불가능할 정도로 내용이 부실하며 코란과의 연결성도 부족하다. 성경은 구절마다 많은 학자들의 비평을 받으며 연구대상이 되어온 반면, 이슬람에서는 코란 연구를 알라 계시의 신성성을 훼손하는 무엄한 범죄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이슬람은 신앙적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무조건적 믿음과 전통이나 종교 지도자의 권위에 완전한 복종을 강요하는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종교이다. 그 문화 속에 있을 때에는 모슬렘 스스로는 그 사슬의 억압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에 와서 자국의 억압적인 이슬람 문화를 깨닫기 시작한 모슬렘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이유이다. 억압의 사슬을 끊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

묵상: 모슬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코란에 나타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

전도, 이렇게 합시다!

전도에 포기란 없다

한 자매가 전도콜센터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와 오빠는 증산교, 여동생은 안식교, 아버지는 무신론자라고 가정형편을 이야기했다. 스물네 살에 일본으로 유학을 간 자매는 부모님이 매일 싸우셨고,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부모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컸다고 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족들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건이 있는 이후 심령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가족의 영혼이 보였고,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눈물로 편지를 써 보냈다. 귀국해보니 어머니는 오빠를 따라 제주도 내려가시고, 아버지는 광주에서 혼자 기거하셨다. 자매는 무신론자인 아버지를 먼저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전도콜센터를 찾아왔다고 했다.

우리는 매주 주일 만나 중보기도를 했다. 2007년 7월 아버지가 사시는 광주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 하루 전날 광주로 내려

간 자매는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불청객처럼 대하며 다소 부담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복음을 전했더니 “여기까지 오신 것은 고맙지만 나는 나 자신을 믿소”라며 거부하셨다. 아마 아들과 부인이 증산교에 빠져 제주도로 이사간 것 때문에 어떤 종교도 믿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자매가 절박한 심정으로 아버지의 팔을 붙들고 “아버지를 위해 저분들이 여기까지 KTX를 타고 오셨어요”라고 외쳤다. 아버지는 반강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마음이 아직 열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억지로 열게 하고 들어간 복음이 무슨 효력이 있을까? 나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허탈감과 실망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면 다시 기회가 있을 거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 후 자매는 선교지에 나가 있어서 아버지와 공백 기간이 있었다. 5년 후 우리는 한국에 돌아온 자매를 만났다. 이번에는 복음을 전하지 말고 아버지 말씀을 많이 경청하는 전략을

썼다. 아버지를 서울로 올라오게 하고선 신앙서적과 남성화장품을 선물로 준비해 갔다. 구면인자라 인사를 했더니 반갑게 맞아 주셨다.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평소 독서를 좋아해서 역사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우리가 정말 배울 것이 많네요. 이런 말씀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라며 찬사를 아낌없이 보냈다. “난 비록 혼자 살지만 누구의 도움도 없이 연금으로 떼떽하게 산다요.”

“정말 현명하시네요. 우리도 그런 점을 본받고 싶어요.”

어느 누구도 당신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우리의 호응에 신이 나신 것 같았다.

“그런데 아무리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어도 인생은 외롭고 공허하며 행복이 없지요?”

우리가 던진 질문에 아버지는 “사실 무척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라고 속내를 털어놓으셨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다. 자매의 아버지는 “내가 이번에는 진심으로 한 번 다가가 보

겠소”라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다. 평소 알고 지내는 집사님의 인도로 교회에 나가신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구역예배와 새벽기도까지 참석하셨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자매의 아버지가 한 번씩 서울로 올라오면 우리와 만나 교제하셨다. 요즘은 성경필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하셨다. 아내가 증산교에서 나와 예수님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전도에는 포기란 없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와 도우심을 구하며, 문을 두드리면 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전도여왕의 전도
레시피〉저자)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느헤미야서는 우리 곁에서 조언해주는 인 물처럼 다가옵니다. 역사상 수많은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의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일어난 일들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그 일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동기, 마음의 상태 등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과 딜레마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전염병 재난의 터널을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로 지나가면서 무너진 세상, 삶과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포로귀환시대에 쓰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종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잘 보여 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때 교회가 느헤미야가 되어서 하나님 위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 어려움에 휩쓸리는 사람이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뿐입니다.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시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느헤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당시 술관원은 왕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왕의 부인이요, 또 한 사람은 술관원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 오를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세울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포로로 귀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이유로 볼 때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했고, 평안했고, 안락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사람을 세우시고 또 보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차 포로귀환 때 느헤미야를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이 다시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에스더가 수산궁에 있었던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 한복판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때에 맞게 그 위치에 합당하게 불러 사용하십니다. 느헤

미야는 왕의 술관원 위치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2-3절).

가장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형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이 세상과 상관없다’는 시각으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이 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단지 동족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여전히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수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의 형편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가장 나쁜 죄는 무관심일 수 있습니다. 나만 괜찮고 편안하면 된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의 위로가 되는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아, 누가 네게 인정을 베풀겠느냐?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누가 네 안녕을 묻기 위해 발길을 멈추겠느냐?”(렘 15:5).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선조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1차, 2차 포로귀환 때 많은 동족들이 돌아갔지만, 여전히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사회에서 성벽이 없는 것은 수많은 도적들과 침입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수치와 수모를 당하며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온전케 하는 일에 아무도 나서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 가슴을 찢는 기도, 수일 동안 사라지지 않는 슬픔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4절).

며칠 동안 슬픔에 잠겨 통곡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눈물의 기도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식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랜 시간동안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고,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에 묻어 두었던 소원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을 바라보며 그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슬피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이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어려운 것은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것은 목회자들이 성경강해를 못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가슴을 찢는 기도, 슬픔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눈물의 기도를 잃어버렸기에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했지만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슬퍼하며 통곡하며 슬피 우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의 마음, 품어야 할 기도의 내용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

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까”(6-7절).

느헤미야가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 형편에 있는 것은 느헤미야의 책임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조상들의 책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는 것이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입니다.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범한 죄와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범한 것처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대명사가 조상들의 죄, 민족의 죄, 나라의 죄가 바로 나의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사회 전체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희생양을 찾아 공격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누군가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며,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패러다임에 빠져들 위험이 많습니다.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인 됨을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만의 죄악이 아니라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임을 깨닫고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당신 때문에 일이 일어났다”는 시각은 참된 회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돌아켜야 할 문제입니다. 어느 누군가만 회개하고 변화되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바로 느헤미야가 보여 줬던 영적 태도입니다. 그는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안타까워하면서 누군가만 정죄하지 않고, 우리의 죄요, 나의 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종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유일한 삶의 기등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14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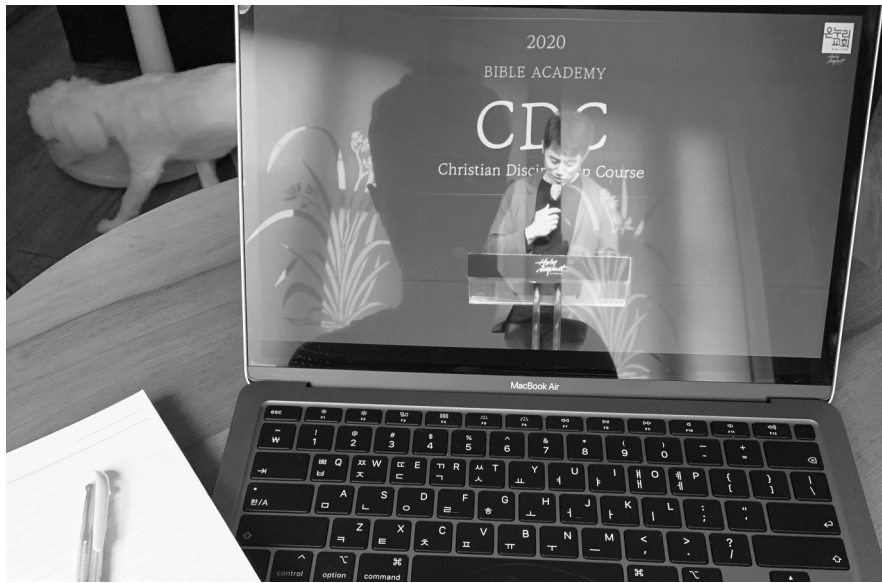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CDC'

CDC(Christian Discipleship Course)의 시작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나태해진 삶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나의 의지였다. 준비했던 대학원에 합격한 이후 퇴사하고 놀러다니려던 나의 계획이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좌절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날 것 같던 좌절의 시간이 반년 넘게 이어졌다. 이 좌절이 곧 삶의 나태함과 무기력함으로 나타났다. 이미 퇴사는 했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집에만 틀어박혀 게으르게 시간만 보냈다. 설상가상 예배당 예배마저 닫혀 영적으로도 침체되기 시작했다.

온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새벽 3~4시가 넘어 잠이 들었다. 오후 3시가 다 되어서야 일어났고, 또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시간 보내기를 반복했다. 점점 주중과 주말의 구분이 희미해져가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 마침 순장님이 바이블 아카데미 CDC를 들은 적이 있는지 연락을 주셨다.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CDC 과정을 신청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CDC 과정을 수료하면서 나에게 두 가지 큰 변화가 생겼다.

첫째, 나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변했다.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CDC 과제 중에 나에게



한준수 형제는 'CDC' 과정을 수강하며 삶의 패턴이 변하고, 말씀 묵상을 생활화하게 됐다.

가장 큰 도전은 새벽예배 20회 인증이었다. 처음에는 퇴사 이후 망가진 수면패턴을 정상화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문득 '새벽예배는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그 전날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찍 잠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날 이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 예배를 드리면서 망가졌

던 수면패턴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또한 오전에 일찍 일어나 예배를 드리고 남은 시간을 활용하게 됐다. 오전에 비는 시간에는 운동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때 시작한 운동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 수면패턴 또한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CDC 과정을 수료하면서 강의 안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와 더불어 삶의 패턴까지 정결하게 만드는 훈

련이었다. 새벽을 깨워 예배를 드리고,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망가진 육과 영이 회복되었다.

둘째, 말씀 묵상이 생활화 되었다. 여덟 번의 강의를 들으며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진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과 관계 유지'다. 삶의 나태함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있었는지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결과였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CDC 강의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었다. 큐티일기를 쓰는 과제와 새벽기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매일 말씀에 노출되었고, 강의를 통해 그 중요성을 더욱 확립하게 되었다. 내 안에 말씀을 채워 나갈 때 무기력하던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 게을러진 삶을 규칙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또한 무너진 예배와 말씀 묵상을 생활화 하는 귀한 시간이자 기회였다.

모든 것이 제한적이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회 건물과 예배 시스템에 의존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말씀과 함께 스스로 삶의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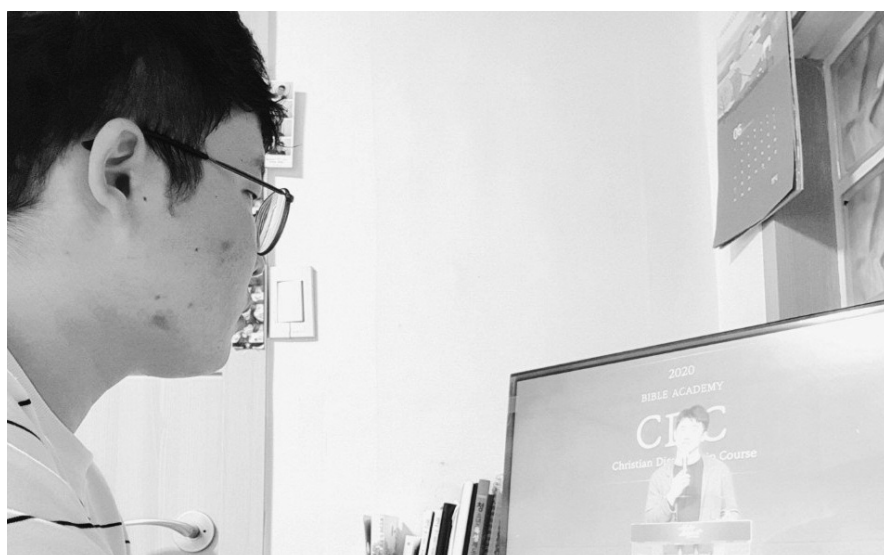
/ 한준수 형제(갈렘공동체)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CDC'

매번 미루던 바이블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됐다. 그동안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바쁜 일상과 피곤한 육체로 인해 바이블 아카데미를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에는 직장 업무와 대학원 강의 수강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했다.

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잠을 더 자기 위해 큐티와 새벽예배를 포기했었다. 주일을 제외한 다른 날들에는 성경을 한 구절도 읽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비춰지기를 원했다.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CDC 과정에 참여하면서 허울뿐인 지난 시간들을 바라보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내가 참여한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CDC 과정은 1주차부터 8주차까지 강의영상, 새벽예배와 큐티, 일정 정도의 과제를 달성해야 수료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다. 나는 평소애 가지고 있지 않았던 습관인지라 새벽예배와 큐티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과 매주 영상을 보고 소감문을 써야 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다. 게다가 대학원 시험기간과 겹치는 일정



최인현 형제는 'CDC' 과정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솔직한 마음을 지인들과 나누었고, 그들은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었다. 그러면서 동역자와 기도의 힘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우선순위를 절대 잊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다 힘이 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 빠른 처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CDC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하나 더 있다. 아무리 답이 없는 환경과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이 답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뜻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었음을 고백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는 그 어떤 생각과 논리를 뛰어 넘어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심을 믿는다.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의 삶이 변화할 수 있음을 믿는다. 이번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CDC 과정은 나에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대학원 시험기간을 핑계 삼았던 상황까지도 말씀을 배우지 않고 공부만 했던 지난 시간들보다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주어진 과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힘겨운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었다.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CDC 과정은 믿음으로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앞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위한 아주 소중한 거름이 되었다.

/ 최인현 형제(하늘공동체)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공동체 ‘온맘통독’ 프로젝트

여호수아공동체 성경읽기 프로젝트 ‘온맘통독’과 함께 한 시간을 돌아보며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에 대해 나누고 싶다.

온맘통독 프로젝트는 학기제(1학기~5학기)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내 시간과 노력으로 성경완독을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긴 시간 집중하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학기별로 성경을 완독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셨다. 또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그룹에서 주어지는 상을 통해 성경통독의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온맘통독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특히 말라기 4장 말씀이 크게 와 닿았다. 죽기까지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시는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때로는 끝까지 갔다고 생각했는지라도, 혹은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었다.

“여호와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렘 29:11).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최민성 형제가 여호수아공동체 성경읽기 프로젝트 '온맘통독'을 하고 있다.

내가 죄로 인한 자기 연민과 자기 파괴 행위를 멈추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나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

성경통독을 시작하기 전 나는 낮은 자존감

의 소유자였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 완벽주의자로 살고자 했다. 그래서 나에게 일이 맡겨질 때마다 몸이 한계에 부딪힐 정도로 열심히 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만 비로소 일을 멈추곤 했다. 그 과정에

서 받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해소곤 했다. 소화가 안 될 때까지 가득 먹었다. 그런데 배가 아플 때까지 먹어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나는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런 내가 온맘통독 프로젝트를 통해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면서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서 바쁘게 움직이던 삶에서 벗어났다. 말씀, 기도, 식사, 운동, 수면이라는 순서로 삶의 균형도 되찾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우리를 영원한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시켜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도록 늘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다.

온맘통독 프로젝트를 하면서 얻게 된 유익이 참 많다. 이 유익을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온 열방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함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다.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순도임 단체 SNS에 온맘통독 프로젝트 안내를 해준 성실한 순장님께도 감사드린다.

/ 최민성 형제(여호수아공동체)

여호수아공동체 ‘온맘통독’ 프로젝트

성경은 말씀 읽는 것을 다음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매일 매일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평소 나는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혹은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며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다. 그 여파로 인해 나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시간이 많이 남게 된 그때 마침 여호수아공동체에서 ‘온맘통독’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는 목사님의 광고를 들었다. 온맘통독 프로젝트는 여호수아공동체 전체가 말씀을 함께 읽는 프로젝트다. 나는 온맘통독 프로젝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 이번 기회에 나의 어지러운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온맘통독 프로젝트 첫날이 아직도 기억난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구절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



전진희 자매가 '온맘통독' 성경읽기를 하며 말씀의 힘을 깨닫고 있다.

리면서 게으름과 타협하지 않고 성실하게 말씀일독을 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렇게 지난 6개월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일대일로 과외를 받는 기분이 들었다. 내게 큰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메모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다.

우선 매일 큐티를 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을 자주 생각나게 만드셨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완악했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 감격과 감동으로 눈물 흘릴 때가 많았다. 어떤 날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라”고 채찍질을 하셨다. 또 어떤 날은 “너무 잘하고 있다”며 칭찬해주셨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나는 더욱 말씀을 붙잡게 되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

획 안에 있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온맘통독 프로젝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였다. 현실과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셨다. 나는 분명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한 부분을 잃었지만, 나를 만드시고 내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까지 채워주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다. 그렇다. 말씀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과 실패의 자리에도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을 보내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에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때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이다.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 전진희 자매(여호수아공동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OBC 로마서 간증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 은혜

온라인 OBC 로마서 과정은 내가 딸의 산후 조리를 돕기 위해 미국에 가 있던 지난 4월 시작되었다. 나는 3월부터 5월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딸의 출산을 도울 예정이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심각해졌다. 교회 예배도, 학교 수업도, 성경공부나 순모임 등이 모두 비대면으로 바뀌어갔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미국에 있던 나도 OBC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성경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이 잘 돌아갈 때 흔히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일상 가운데 세심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또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심으로 인해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쁘다.

온라인 OBC 강의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서를 택한 이유는 이재훈 담임



신지는 권사가 온라인 OBC 로마서 강의를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겠다고 고백했다.

목사님의 강의였기 때문이다. 보통 OBC 강의의 경우 담임목사님이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강의가 14주나 되었고, 4-5월 동안

에는 딸과 손자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하면서 모든 과제를 제출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잠깐 등록하지 말고 청강만 할까도 고민했었다. 그런데 청강을 하게 되면 해이해질 것 같았다. 피곤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성실하고 열심히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를 들어도 한꺼번에 몰아서 들을 가능성도 있었다. 힘들더라도, 과제를 다 못해서 수료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열심히 시작해보자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엿그제 같은데 벌써 14주 강의가 다 끝났다.

OBC 성경공부나 일대일제자양육 외에도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하면서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물론 성경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난다. 섬김에 대해 더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자란다. 그러나 모든 과정의 끝에서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깨닫게 된다. 이번 온라인 OBC 로마서 과정도 그랬다.

나는 지난 14주 동안 매주 과제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 시간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끝까지 붙들 것을 또 한 번 다짐한다.

/ 신지는 권사(양천공동체)

코로나19, 이웃사랑으로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긴급구호팀

어떤 곳에 있던 섬김의 자리에 있고 싶다

주일에배에서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수해복구 긴급구호를 간다면서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봤다. 잠시 망설였지만 그래도 바로 신청했다. 내가 잠시 망설인 이유가 있다. ‘과연 내가 2박3일 수해복구 긴급구호 일정 동안 잘 하고 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자주 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그 생각 때문에 신청할까 말까 잠깐 망설여졌다. ‘내가 수해복구 긴급구호 봉사자로 가는 대신 그곳에 가는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랐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긴급구호 수해복구 봉사자로 가기를 원하셨다. 나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주시고 움직이셨다.

수해복구 긴급구호 봉사자 신청을 한 주일 저녁부터 현장으로 떠나는 날까지 기도를 계속 했다. 팀원들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함께 모이고 기도하며 달려간다는 마음이 동일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했다.

수해복구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봤더니 생각보다 처참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암담한 상황이었다. 처참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찾을 수밖에 없었다. 오랜만에 참여하는 수해복구 봉사였는데 내 몸은 이미 기억하고 있었던 듯 먼저 반응했다. 누구보다 먼



정세준 형제(사진 왼쪽)가 2박3일 동안 수해복구 긴급구호를 다녀왔다.

저 집을 덮친 토사를 치우고 있었다.

토사가 물과 함께 섞여있어서 쉽게 옮겨지지 않았다. 날씨 또한 매우 습하고 더웠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 오듯이 쏟아졌다. 불쾌지수가 높고, 작업능률도 오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팀원들 중에서 그 누구 하나도 짜증을 내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다.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복구 작업에 임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아시고 날씨와 현장 상황을 지켜주셨다. 다행히 복구 작업 기간 내내 비가 내리지 않았다.

나는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번 수해복구 긴급구호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이런 저런 걱정이 많았다. 그 걱정들을 잠시 접어두고 수해현장에 왔다. 열심히 복구 작업에 임하면서 도리어 이곳에 오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개인적인 고민을 뒤로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사람들과 함께 봉사하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크신 사랑을 다시금 체험할 수 있었다.

일정상 많은 작업을 하고 올 수 없어서 아쉬웠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피

해를 입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절망으로 잃어버린 어르신들의 웃음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다.

수해복구 긴급구호 봉사를 하면서 다짐한 것이 있다. 어떤 곳에 있던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 이재민이 발생하고, 큰 피해를 입은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 언젠가는 꼭 한번 수해현장에 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내가 많은 재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보고 싶었다. 마침 이번 수해복구 긴급구호 현장이 그 결심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 언제 주님께서 부르는 현장에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더욱 바라봐야겠다고 다짐했다. 비록 몸은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정말 뿌듯했다. 모든 일정이 참으로 값진 시간이었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

또한 언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모르는 주님을 더욱 기대하고 갈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다. 나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다.

/ 정세준 형제(SNS공동체)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특강 ‘좋은 부모스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지금도 유영순 목사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했던 시간들과 처음 아이들을 만났던 감격과 기쁨들을 잊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 연년생으로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친정 과도 멀리 떨어져 결혼생활을 했던 터라 정신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원했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매일 아이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행복이기보다는 해야 하니 어쩔 수 없는 시간이 많았다. 그런 마음이 나조차도 싫었던 터라 그 힘든 마음을 부여잡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아이들과 보내는 그 시간이 결코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순간임을 깨닫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집중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좋은 부모스쿨’을 통해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생명의 통로이고, 자녀의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새겨 주셨다. 목사님께서 내주신 속제 ‘사랑한다고 12번 이상 말해보기



좋은 부모스쿨을 통해 이현영 성도 가족은 서로를 깊이 알고가고 있다.

’, ‘자주 안아주기’를 실천할 때 아이들의 표정이 환해지고, 충만함 속에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매일 QT로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예배가 어렵고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나가는 즐거운 시간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가정예배 횟수가 늘어갈수록 아이들이 생

각하지 못했던 성격적 질문을 하고, 말씀의 내용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 것을 보면서 가정이 교회임을 깨닫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아이들과 눈 마주치며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늘어가면서, 연년생으로 자라서 넘치는 승부욕으로 인한 다툼도 잦아들었다. 아이들과 함께 더 많이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면서 나와 아이들이 서로의 마음을 깊이 알고가고 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중이다.

하나님은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했던 나의 옛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나만을 위한 시간보다 훨씬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워 주셨다.

이제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 크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 또한 아이들에게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허용하고, 보듬어 주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기를 결단하고,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다.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고 응원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7).

이 말씀처럼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데 힘쓰고, 아이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한다. 모든 차세대 부모님들 파이팅!

/ 이현영 성도(수원 온누리교회)

온라인 OBC 요한복음

온라인 OBC 요한복음 과정을 공부하면서 배운 점을 한마디로 고백한다면 ‘영광이신 예수님으로의 초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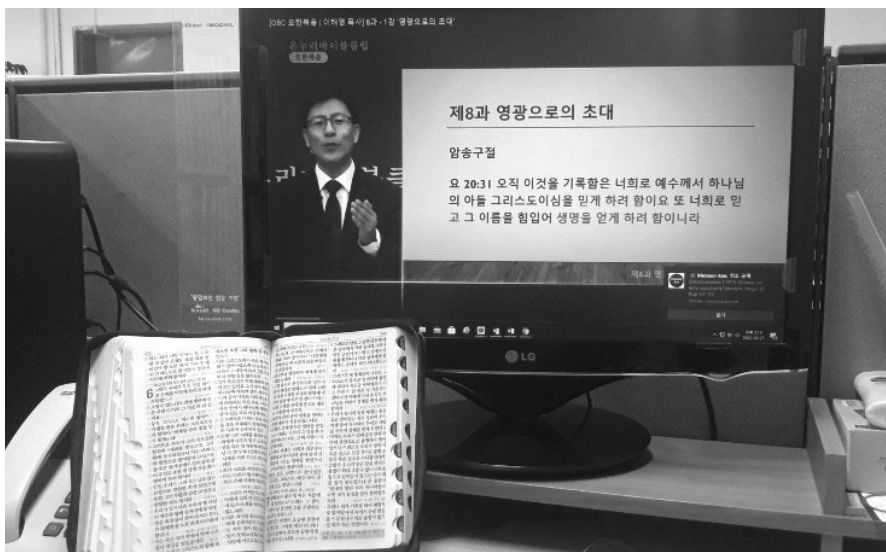
하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의 영광을 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증언했다. 세례 요한은 그 영광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 1:36)”이라고 외쳤다.

예수님은 이 영광에 대해 스스로 증언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7대 자기계시’라고 부른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계시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에 나타난 ‘7대 표적’이라고 한다. 사도 요한은 이를 통해 영광이신 예수님을 나타냈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사도 요한이 우리를 영광이신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에 관하여 예수님



정남현 성도는 OBC 요한복음 과정을 공부하며 영광이신 예수님께 초대받았다.

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요한복음에 믿는 것은 곧 아는 것이며, 보는 것이며, 만지는 것이며, 경험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영광이신 그분께 나아왔다.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

하여 어떤 관념이나 신념이 아니라 영광이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영광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곧 하나님이다. 그 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려는 것이다(요 3:16). 영생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다. 현재적으로 누리는 생명이다.

이 생명에 관하여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영광이신 예수님의 초대는 곧 생명으로의 초대이다. 이 생명은 현재적으로 살아서 역동하는 부활생명을 의미한다.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때부터 예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성이 구체적으로 시작됐다. 여러 차례 요한복음을 공부했는데 이번 온라인 OBC 요한복음 과정은 ‘영광’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을 배운 매우 독특한 경험이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 증인들의 고백, 예수님의 자기계시, 성령님의 증거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이 증거를 통해 나도 영광이신 그분께 초대를 받았다. 이것을 깨달을 때 영광이신 예수님께 누군가를 초대하는 복된 일에 쓰임 받게 되는 소망을 품게 된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간다.

/ 정남현 성도(남양주 온누리교회)

영광이신 예수님으로의 초대

대학청년부 비대면 여름선교 '미션 커넥트' (Mission Connect) 받은 은혜 그리고 축복

CH PLUS공동체
'안디옥 무브먼트'

CH PLUS공동체는 미션 커넥트(Mission Connect) '안디옥 무브먼트'를 실시했다. 나는 매해 여름 돌아오는 아웃리치를 손꼽아 기다린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특정 지역으로 떠날 수 없지만, 대학청년부 선교사역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했다. 물론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역 방식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걱정들이 있었다. 자칫하면 사역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역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세를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처음에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난민들을 위해 생필품을 구입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난민들의 이미지만 그려지고, 실제적이지 않아서 생기는 막연함과 답답함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코로나19 사태보다 더욱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잘 녹아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나는 겨우 이 정도로 답답함을 느끼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정신을 더욱 바짝 차릴 수 있었다.

국제난민단체 '피난처' 이호택 대표님과 지혜 간사님의 강의, 난민 국가를 자세히 조사하



CH PLUS공동체 '안디옥 무브먼트'를 통해 난민에게 전달된 생필품.

고, 각 조의 발표를 들으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난민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난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나의 편견과 선입견,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누구를 만나든 난민에 대해 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깨달았다.

내가 난민들의 어려운 상황과 아픔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사랑을 난민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더 알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꿈을 꾸는 한 사람으로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아웃리치를 갈 수 없고, 간단한 모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하다. 언제 끝날지조차 모르는 이 시간들이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피난처 이호택 대표님께서 난민에 대한 강의 중에 하신 말씀을 듣고 위로 받고 마음 깊이가 새기게 됐다.

“지금 이 시대는 모든 땅 끝에서 모든 땅 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초연결사회’입니다. 난민들이 모든 땅 끝에서 우리 주변으로 왔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모든 땅 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 선교의 마지막 주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 모든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선교의 마지막 주자는 바로 난민입니다.”

혼란과 위기의 시기 가운데서도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선교를 멈추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선교의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 방법 중 하나를 CH PLUS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심으로 감사했다. 미전도 종족 선교시대를 지나 변화되는 선교시대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다. 막막함을 뛰어넘어 앞으로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에 동참할 수 있다는 소망과 큰 기대감을 심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송사라 자매(CH PLUS공동체)

SNS공동체
'미션 커넥트 시미즈'

2019년 7월과 2020년 2월 일본 시미즈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2월에 다녀왔던 아웃리치가 마지막 아웃리치가 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곳에 다시 가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 때문인지 그리움이 더욱 커졌다. 이번 여름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과연 섬김의 시간이 주어지긴 할까?'라는 걱정도 되었다.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SNS공동체에서 진행한 '미션 커넥트 시미즈'를 통해 내 생각이 얼마나 알팍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미션 커넥트를 준비하면서 연약했던 나는 'ZOOM(화상프로그램)'으로 하는 블레싱으로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계산을 했다. 또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라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거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동행해 주셨다. 나는 하나하나 준비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미션 커넥트는 '뉴노멀(New Normal)'로 설명되는 코로나 시대에 머리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에 와 닿지 않았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하나님 손을 잡고 걸기만 하면...



SNS공동체는 '미션 커넥트 시미즈'를 통해 사료교회 성도들과 축복하며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교라는 것이 선교지에 나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때 선교방식은 형식적일 뿐이고, 미디어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서 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그 사랑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것이었다.

SNS공동체 블레싱팀에서 준비한 선교사님과 사료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영상편지, 전에 진행했던 사역 영상 및 복음메시지를 담고자 했던 모든 영상들은 하나의 도구일 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목도하게 되었다. 대면을 넘어선 온라인이라는 매체 또한 하나님의 선교에 중요한 것

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증거하고 계셨다.

화면 너머에서 선교사님이 눈물 흘리며 기뻐하고 계셨다. 흐린 화면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반가워하는 팀원들과 사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눈물 흘리고, 기뻐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영역일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연합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보여주실 것을 신뢰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사 43:19).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선교는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에 우리가 부르심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에게 은혜가 온전히 전달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하자며 내미시는 그 손을 잡고 부르심의 길을 걸기만 하면 된다. 미션 커넥트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속 깊이 새기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었다.

/ 박새미 자매(SNS공동체)

전문가 기고

욥기의 창조주 하나님

이 시대에 꼭 만나야 하는 하나님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욥기는 참 어렵다.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큰 복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재물과 자녀를 모두 잃어버리는 엄청난 재난을 당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고난을 하나님의 시험(test)이라고 해석하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아브라함도 시험하셨고,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하셨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으셨음을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마 4:1).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고자 시험하시며(대하 32:31),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 시험하신다(시 66:10). 하나님의 시험과 세상에서 보는 시험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대부분 시험을 싫어한다. 자신의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시험이 있어야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고, 더 노력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 시험을 통해 자신이 드러나고, 그 과정을 통해 단련을 받는 것이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시험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은 고난을 헤쳐가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난을 하나님의 시험문제로 인식하는 순간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난 때문에 힘든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난을 시험이라고 인식할 때 계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시험을 통과하면 영광이 뒤따를 줄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 거장들에게 주신 시험문제는 너무나 어려운 것 같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도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을 통해 창대한 민족이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믿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는 영적 도약이 있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경험하였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신 욥에게 주어진 시험문제도 난이도가 매우 높다. 그럼에도 욥은 거의 정답에 가까운 고백을 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 1:21).

욥은 자신의 몸에 심각한 피부병이 생겼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데 욥은 정말 정답을 말한 것일까? 욥은 하나님을 절대적 주권자로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자신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고 두려워했던 것 같다. 욥은 자신의 아들들의 생일잔치가 끝나면 반드시 제사를 드렸다. 혹시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엄청난 고난을 당한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욥은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했다고 말한다. 욥은 하나님께 범죄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고통을 주실 바에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제한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빼앗아가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축복을 거두어가셨나? 정확하게 말하면 욥이 받은 축복을 모두 파괴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렇게 할 수 있도

록 허락하셨기 때문 아닌가?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허락은 특별한 보호하심을 거두어감을 의미하는 것이지, 축복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같은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이런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탄이 욥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 하는 말을 먼저 들어봐야 한다.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루심 때문이 아니니이까?”라고 질문한다. 사탄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며 도전한다. 첫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이라는 도전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특별히 욥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쩌면 욥에게 닥친 진정한 시험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느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축복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믿음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시다. 사탄의 도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타깝지만 사탄의 주장은 사실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경험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축복의 선물도 지킬 수 없다는 사탄의 주장도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한 특별한 보호하심을 거둬으로써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셨다. 또한 이런 참혹한 결과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욥을 통해 우리에게도 욥에게 주었던 시험문제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라고 묻지만, 욥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욥은 고난 이후 하나님을 만나고 “귀로만 듣던 하나

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욥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 욥은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변론하다가 자신은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한 것처럼 감정적인 주장을 펼친다.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욥을 꾸짖으시며 나타나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과 바다, 사마귀와 흑암, 벌들과 동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까마귀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씀하신다.

고난과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욥이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욥의 반응은 찢어질 듯하다(욥 40:4).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창조물 중의 으뜸 되는 베헤못과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인 리워야단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욥이 진정 회개한다(욥 40:1-6). 무엇이 욥의 마음을 바꾼 것일까? 아마도 공물을 연상케 하는 거대한 동물로부터 이미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의 축복을 다시 빼앗으신 것이 아니라 그 축복 자체가 특별한 은혜였으며,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고난과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욥에게 놀라운 회복과 위로가 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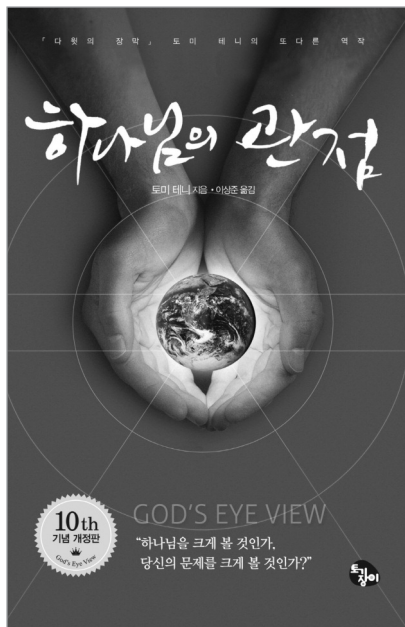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특별한 은혜가 사라져가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자초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으신다.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난의 이유를 분석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이미 주셨던, 또한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권면한다. 우리는 욥과 같은 믿음이 없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난의 자리에서 만나야 한다. 그 만남을 통해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욥이 회개를 통해 새로운 믿음과 축복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믿는다.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시험문제에 욥보다 바른 답을 제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책 읽어주는 목사

관점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방법 ‘예배’



하나님의 관점
토미테니 저 | 토기장이 | 13,000원

질병과 재난과 갈등의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난리와 소문이 가득한 상황에서 세상은 다양한 해석과 해법을 제시한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집값이 치솟고,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은 위기 속에서도 이 후를 고민하고 살 길을 찾는 우리네 심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비가 내릴 때나 햇빛이 비출 때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구별 없이 내리듯이 모두가 외면할 수 없고 회피할 수도 없는 이 환난의 시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다윗의 장막〉의 저자이기도 한 토미테니는 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해법을 제시한다. 자신의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고, 문제들이 너무 크게만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 지 막막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 토미테니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한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작은 공간의 한정된 관점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들어 올려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도록 하시는 방법이다.”

이 설명을 잘 이해시켜주는 토미테니의 예화가 책 속에 있다.

어린 시절 함께 비행기를 탄 막내딸이 이륙하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며 “닥은(작은) 사람들, 닥은 조그만 차들, 닥은 집들이야”라고 말했다. 그 딸에게 저 사람들과 차

와 집들은 작지 않은데, 우리가 높이 올라와서 작아 보이는 거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딸은 그저 모든 것을 작은 것으로 여겼다. 높이 올라오자 아이의 관점이 변화된 것이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관점의 변화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느님의 높은 보좌에 좌정해 계신다. 현실에서 마주한 문제들이 우리의 시선에서는 크고 위협적이게 보이기 마련이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문제들은 아주 작은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 간의 관점 차이를 극복하게 해준다. 예배는 우리를 거룩한 상승기류에 태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끌어올려준다. 그때 너무 크게만 보였던 세상의 문제들이 작은 일이 되고,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더욱 크고 가깝게 보인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세상과 다른 해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열 명의 정탐꾼이 그 땅의 사람들을 거인이라고 표현한데 반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때뚜기라고 한 것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관점과 해법을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

한 하늘의 방법이 바로 예배이다. 그래서 토미테니는 환경을 넘어서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열정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권면한다. 아바를 향해 자신을 높이 들어달라고 두 팔을 뻗고 간절히 바라보는 아이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두 팔을 뻗고 간절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토미테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쉽고 친근한 다양한 예화를 통해 예배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성경에 분명하게 밝혀 주셨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사 4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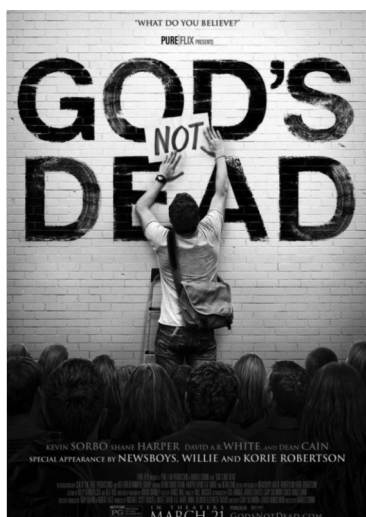
이 말씀은 단지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규정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 받은 것이다. 어떤 상황에 있을 지라도 예배의 권리와 축복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김윤식 목사
(W청년부)

넷플릭스(NETFLIX)에서 만나는 기독교 영화

무신론자에게 신을 증명하는 방법



신은 죽지 않았다
(God's Not Dead)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을까?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의 주인공 ‘조쉬 휘튼’에게 과제가 주어진다. 무신론자 철학 교수 ‘제프리 래디슨’과 수강생 80명에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과제이다. 제프리 래디슨 교수가 첫 수업에서 낸 ‘신은 죽었다’는 주제의 과제를 정면으로 반박했기 때문이다.

제프리 래디슨 교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소년이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암으로 죽어가는 어머니를 살려달라는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일까?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었다.

조쉬 휘튼의 증명은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았지만,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조쉬 휘튼의 친구들이 하나 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나간다.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는 테네시의 안과 의사 밉왕(Ming Wang)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대

학 시절 무신론자였던 밉왕은 대학 교수와 ‘하나님과 신의 존재’에 관해 대화를 나눴고 그 해답을 찾았다. 신은 죽지 않았다.

두란노 신간

기독교, 죽음 극복하고 대면할 수 있는 자원



〈죽음에 관하여〉
팀 켈러 저 | 두란노 | 7,000원

〈죽음에 관하여〉는 팀 켈러의 기독교 인생관 3부작 중 하나이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하여 크리스천들이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팀 켈러는 이 책에서 ‘언젠가 맞이할 나의 죽음, 준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당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한다. 18개월 동안 세 명의 가족을 떠나보낸 팀 켈러와 그 가족의 대화, 아내 캐시 켈러의 동생 테리의 장례식에서 전한 설교가 이 책의 기초가 되었다.

팀 켈러는 “현대 사회는 죽음을 부정하고 회피하고 있다”면서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겁쟁이가 되고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어야 할까? 이 책에 그 해답이 있다.

“모든 종교가 죽음과 내세를 말하지만, 대체로 주장하는 바는 영원히 대비하려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죽음이 닥쳐오면 우리 모

두는 자신이 최선의 삶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음을 깨닫는다. 오직 기독교만이 죽음을 극복하고 대면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준다.”

창립 21주년 기념식

2020년 8월 25일(화) 오전 11시



창립 21주년을 맞이한 온누리복지재단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창립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송영범 장로(가운데), 박준기 관장(왼쪽), 이성희 관장(오른쪽).

“복지사회 롤 모델이 되겠습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창립 21주년

온누리복지재단이 올해 창립 2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8월 25일(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온누리복지재단 창립 2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창립 21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온누리복지재단의 정체성과 소명의식을 보다 분명하게 확립하기 위하여 ‘미션, 비전, 핵심가치’를 선포하

고,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온누리복지재단 미션, 비전, 핵심가치, 윤리강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과 투명, 존중과 배려, 역할과 책임 등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전문가로서의 다짐과 소명 등이 담겼다.

온누리복지재단 이사장 이재훈 담임목사는 온누리복지재단 임직

원들에게 영상메시지를 보내 “온누리복지재단 모든 임직원들이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선한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온누리복지재단 송영범 대표이사는 “온누리복지재단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면서 “온누리복지재단이 복지사회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수해 입은 농어촌교회 돕다

13개 교회, 복구비 2천4백만 원 지원

사회선교부 농어촌선교팀에서 수해를 입은 13개 농어촌교회에 복구비 2천4백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장마에 건물과 시설이 노후 된 농어촌교회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사회선교부 농어촌선교팀은 수해를 입은 농어촌교회들을 발 빠르게 파악했다. 농어촌선교팀에서 매월 후원하고 있는 100여 개 농어촌 교회에 전화조사 및 긴급 답사를 실시하고 예배당 및 사택 침수, 지붕 및 외벽 누수, 종탑 붕괴 등 피해상황을 집계했다. 이 중에서 피해가 막대한 13개 교회를 선정해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복구비를 지원했다. 사회선교부 이기훈 목사는 “많은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과 정성으로 온누리교회와 동역하고 있는 농어촌교회들을 도울 수 있었다”면서 “우리의 작은 도움을 통해 농어촌교회들이 수해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사회선교부 농어촌선교팀이 집계한 농어촌교회 수해 현황

교회명	수해 내용
섬진강교회(전남 구례)	섬진강 제방붕괴로 인한 본당, 사택 침수
월전교회(전남 구례)	섬진강 제방붕괴로 인한 본당, 사택 침수
내주교회(전북 완주)	본당 지붕 누수 심각
외곡교회(전남 구례)	섬진강 제방붕괴로 인한 주택 침수
유곡교회(경북 봉화)	교회 지붕 누수 심각
성온교회(경북 구천)	종탑근처 지붕 및 벽면 누수 심각
수계교회(경북 예천)	휴당 붕괴
배전교회(경북 영주)	종탑붕괴, 교회 지붕 및 사택 누수
빛마을교회(경북 영주)	임시예배처 침수 및 농작물 침수
연하교회(강원 영월)	지붕 누수
맹방교회(강원 삼척)	교회 외벽 및 현관 파손
온빛교회(충북 진천)	지붕 누수 및 현관문 파손
조동교회(충북 영동)	교회, 수양관, 사택 모두 누수

CGNTV, 교회 유튜브로 영상예배

성도들의 개인영성관리 위한 콘텐츠도 제공

온누리교회가 지난 8월 19일(수)부터 영상예배를 드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성도 보호 및 사회적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다.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CGNTV나 온누리교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

토요일 1~3부, 일요일 1~7부 예배, 새벽기도회(1부 오전 5시 20분, 2부 오전 6시 30분)를 영상예배로 드린다. 화요일성령집회, 수요일성령예배, 수요일목양예배도 영상으로 드린다. 월요일치유집회, 경배와찬양, 금요회복예배, 금요철야예배는 당분

간 드리지 않는다.

차세대, 대학청년부, 홀리스타, 외국어예배(영어예배, 일본어예배, 중국어예배, 프랑스어예배, 스페인어예배), 사랑부(장애인예배) 주일예배도 각 예배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하단 예배 안내 참조). 순예배도 영상으로 드린다. 또한 개인영성관리를 위하여 CGNTV에서 방영되는 ‘생명의 삶(QT)’,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에도 매일 참여해야 한다. 새가족 등록 과정도 당분간 중단된다. 이미 시작된 새가족 등록 과정은 영상교육으로 대체한다.

아프리카 기니비사우 긴급구호

NGO 더멋진세상, 7개 마을 147가구 식료품 등 지원

NGO 더멋진세상이 아프리카 기니비사우 블룸지역 7개 마을 147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구호를 실시했다. 지난 8월 20일 아프리카 기니비사우 블룸지역 7개마을(오수, 꺄팍, 꺄늑, 플루트, 타나, 꺄세네, 꺄습) 147가구 주민들에게 쌀, 식용유, 비누, 락스, 손세정제 등을 지원했다.

기니비사우 블룸지역은 수도 비사우에서 2시간 정도(40km) 떨어진 지역이다. NGO 더멋진세상이 2014

년부터 돕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이 하루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NGO 더멋진세상 현지 사업자는 “촌장들을 통해 노인 가정, 한부모 가정, 임산부 가정을 우선 지원했다”면서 “앞으로도 이 지역에 NGO 더멋진세상의 긴급구호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온누리전도학교 2학기 온라인 특강

온누리전도학교가 2학기 온라인 특강을 신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11일(금)부터 11월 6일(금)까지 8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온라인(YouTube)으로 진행된다. 강의 후에는 온라인 조별 나눔을 실시한다. 온누리전도학교 과정은 온누리 전도학교 비전(목표), 최고의 행복, 기본 전문 등을 주제로 이어진다. 회비는 1만5천 원(교재, 필독서, 전도지 비용).

문의: 010-3326-4364

건강한 가정생활 위한 ‘멘토와의 티타임’

두란노어머니학교가 건강한 가정생활을 돕기 위한 유튜브 채널 ‘멘토와의 티타임’을 운영하고 있다. 멘토와 함께 가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채널이다. 사전에 성도들의 질문과 사연을 신청 받아 멘토가 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질문이나 사연신청은 두란노어머니학교 이메일(motherschool@korea.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2182-9114

두란노서점, 온누리교회 성도 위한 서비스

온라인 스토어 개설 및 정기구독 신청

두란노서점이 온누리교회 성도 전용 웹사이트 ‘두란노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했다. 두란노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생명의 삶>,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 공동체 양육과정 필독서 등을 판매하고 있다. 두란노 온라인 스토어에 있는 도서를 1만 2천 원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배송해준다. 온라인 스토어에는 홈페이지(www.duranno.com/store/onnuri)

로 접속하면 된다.

한편 두란노서점에서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을 받고 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은 전화로 하면 된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특별혜택 및 소정의 선물을 제공한다.

온라인 스토어 문의: 02-796-2310
정기구독 문의: 서빙고 010-3301-1159, 양재 010-8741-8076

온누리교회 영상예배

온누리교회 유튜브: www.youtube.com/user/Onnuriservice
CGNTV: www.cgntv.net

차세대 영상 주일예배

- 예수님의 꿈이야: 오전 9시, 11시 30분, 오후 2시
- 꿈이 자라는 땅: 오전 9시, 11시 30분, 오후 2시
- 파워웨이브: 오전 9시, 11시 30분
- 차세대 전용채널: www.youtube.com/c/온누리교회차세대

대학청년 영상 예배

- 주일예배: 토요일예배 오후 6시, 주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4시, 5시 30분
- 홀리스타: 월~금 오전 6시 30분
- 대학청년 전용채널: www.youtube.com/c/온누리교회대학청년

외국어 영상 주일예배

- 영어예배: 오전 11시, 오후 4시
-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예배: 오후 2시 각 유튜브 채널

장애인 영상 주일예배 www.youtube.com/c/온누리교회장애인사역

창조신앙스쿨 간증



/ 최재훈 성도(도곡공동체)

창조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

창조신앙은 내가 듣고 싶었던 강의 1순위였다.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늘 과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호기심만 가지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직장을 얻어서 벌써 30년 쉼 없이 직장생활만 즐기치게 달려왔다. 매번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창조는 무엇인가?’,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그에 맞는 증거들은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서적을 찾아보기도,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기도, 강의를 들어보기도 쉽지 않았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는 바람에 고객을 만날 수도 없고, 바쁜 일상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찾아왔다. 어쩌면 이 시기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에 좌절하지 않고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창조과학강의를 신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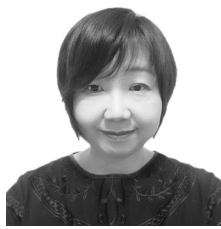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믿어야 하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신을 갖는 믿음이 생겼다.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령 있다고 하더라도 창조는 절대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어찌 이렇게 정교한 우연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우주와 광활한 생명체를 볼 때마다 절대 이것은 우연으로 생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번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더욱 확실하게 창조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었다. 내 주변에는 진화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다. 빅뱅이론을 믿는 사람들도 많다. 그 사람들에게 이번 강의를 통해 내가 논리적으로 창조에 대해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나를 흥분하게 만든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창조는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게 삶과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는지에 대한 믿음을 함께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단순히 강의를 들은 것에 멈추기 보다는 잘못된 진화론으로 세뇌되어가고 있는 지금, 나는 더 열심히 창조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다.

끝으로 창조신앙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많은 장로님, 간사님, 총무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그분들의 헌신이 나와 같은 사람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잡아주는 것 같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갈렙선교학교 4기 수료자 간증



/ 장혜정 집사(행신동 큰나무교회)

선교의 시작 기도, 관심, 이해

온누리교회와의 인연은 2014년 상하이 주재 원으로 파견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상하이에서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으며 주님과과의 새로운 만남이 열리게 되었다. 2년 동안의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고 싶었지만, 성도 100명의 작은 교회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해주시는 권사님으로부터 갈렙선교학교를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전도도 잘 못하는데 부담스럽다’며 사양했는데 그럴수록 강의를 듣고 선교에 대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이 세졌다. 그런데 함께 갈렙선교학교에서 함께 배우자고 하시던 권사님이 사정상 등록을 취소하셨다. 나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했다. 갈렙선교학교 ‘하나님의 부르심’ 강의에서 전도와 선교는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라는 말씀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나는 올해 4월에 32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떠나면서 새로운 일은 엄두도 못 내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있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 일자리가 주어지면서 갈렙선교학교 두 번째 ‘미션 헬퍼십’ 강의를 들

었다. 그동안 일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선교의 비전으로 하나님 중심인 헬퍼십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의를 들으며 주님께서 나의 인생 후반전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가까이 있던 이주민들을 무심코 지나쳤던 일들이 주님 관점의 삶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였다. 갈렙선교학교 국내선교 현장체험을 가산동 난민 피난처로 갔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와 채 5분도 안 되는 거리였다. 현장체험에서 이슬람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세계의 미전도 국가가 너무 많고 그곳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그들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 어려움에 무심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그들에 대한 기도, 관심, 이해가 선교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아직도 부족하고 더 배워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진정한 헬퍼십이 무엇인지, 선교사적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를 기도한다.

일대일제자양육 수료자 간증



/ 신영임 성도(강촌공동체)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성경

나이 환갑에 수십 건의 소송에 휘말려 집이 강제경매 되던 재작년 4월,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준비하던 중에 로마의 시스티나성당에서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게 빛을 보내셨다. 불교신자였기에 그 의미를 몰라 40년 가까이 나를 전도하던 친구에게 물었다.

“죽기 전에 성경책을 딱 한 번이라도 읽어봐.”

성경은 내게 엄청난 감동과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주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졌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고민을 기가 막히게 알아채시고 나를 위해 15년 동안 기도하고 계셨던 이용표 교장선생님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해주셨다. 그렇게 온누리교회에 왔다. 난생 처음 교회에 왔는데 모든 것이 너무 좋았다. 특히 일대일제자양육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지 16개월 차인 내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일깨워주는 너무나 소중한 공부였다.

재작년 시스티나성당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빛이 죽어있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너무 어색하고, 머리로는 이해되나 가슴으로는 전혀 와 닿지 않았던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행위가 믿어지기 시작했다.

너무 신이 나서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었다. 14장부터 17장까지는 모두 암송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알았다.

요즘 나는 요한1, 2, 3서를 외우고 있다.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대신하려고 신약성경을 전체를 암송하려고 한다. 나처럼 60살이 넘도록 하나님을 알려고 조차 하지 않는 이들에게 죽기 전에 꼭 한번 만이라도 읽어야 할 성경에 대해 알리며 복음을 전하고픈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일대일제자양육에서 배운 대로 이제는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며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앞으로 나는 영원토록 온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종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온라인 OBC 빌립보서



/ 이윤길 성도(평택 온누리교회)

문제를 푸는 출발점

나의 첫 번째 성인공동체 OBC 과정을 완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번 온라인 OBC 빌립보서 7주 과정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묵상했다. 나의 삶에 적용이 많이 필요하고, 개선해야 할 것들이었다.

빌립보교회 상황이 내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신앙생활을 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적인 측면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가 나와 주변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온라인 OBC 빌립보서 강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주시는 것 같았다.

또한, 온라인 OBC 빌립보서 과정을 통해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성인이 된 나는 청년 때보다 기도를 더 적게 하는 것 같다. 기도에 대한 의지, 의무, 절실함이 사라져버렸다.

나도 모르는 사이 교만함이 내 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역 속에서 나를 바쁘고 분주하게 살

아왔는데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릎 꿇는 시간을 회복해야겠다.

목사님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멈추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난다. 정말 하나님께서 “멈추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돌아보면 기도해야 할 것들이 주변에 넘쳐나는데 이제껏 기도의 삶을 외면하고 있었다. 온라인 OBC 빌립보서 과정을 들으면서 코로나19 이외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순간이 기도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이 느껴졌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염려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바울이 빌립보교회에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다.

장로칼럼

권사칼럼

믿음은 명확성과 민첩한 실천

통합 1기 온누리전도학교 개설



김지현 장로
(강촌공동체)

믿음의 본질은 명확성에 있다. 복음이 분명하게 전해진 증거는 두 가지 반응으로 알 수 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이거나 돌을 들고 쳐 죽일 듯 달려드는 강력 한 저항이다. 혼탁하고 혼미한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힘은 진리의 단순함이 가지는 명확성에 있다. 복잡한 이유가 많은 까닭은 아직 내 안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세상의 미혹이 다가올 때는 각종 조건과 상황으로 복잡 미묘한 상황을 연출한다. 겉보기에 가치중립적인 양, 심지어 고상하고 뜻깊어 보이기까지 하는 관용, 배려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종내 타협하는 것이 인격적이고, 지성적이며, 합리적인 것이라고 속인다. 고도의 전술과 전략이 진리의 명확함에 하나의 타협점을 살짝 끼워 넣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같은 사례에서 그 단면을 볼 수 있다. 진리는 명확하다. 너무 명확해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 진리의 길이다. 우리는 이제 직면해야 한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반반씩 발을 딛고서 살아갈 만 할 때는 세상 쪽으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양면성을 버려야 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이 강화되고 있는 매우 어려운 때다. 이럴 때 전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습이 자칫 라오디게아교회를 닮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뉴노멀 시대에 믿음의 본질을 생각하고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온전히 하나 되는 명확한 삶을 부단히 추구하며 살

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믿음은 민첩한 실천이다. 모호성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 없이 가치관과 정체성의 혼란을 불러온다. 모호성을 타파하는 가장 좋은 길은 옳은 것을 즉각 실천하는 민첩함의 유지에 있다. 많은 질병이 움직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 현대인의 병으로 불리는 각종 대사질환들은 규칙적이고 꾸준한 걷기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개선된다고 한다. 영양을 섭취한 만큼 충분히 움직이는 습관을 들인다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먹었으면 행동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영적 대사증후군’에 빠질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라고 말한다.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던 때는 어느새 옛날이 되고, 이제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고 심지어 비웃기까지 하는 때가 되고 말았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지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 버려져 밟히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며 깊이 자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 뼈아프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신앙과 삶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릴만한 정체성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변화의 끝에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고난, 고통, 눈물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카타콤의 성도들처럼, 명확한 신앙과 백을 할 수 있도록 결단의 때를 허락하신다.



강경숙 권사
(온누리전도학교)

성도라면 누구나 자신의 신앙여정을 돌아볼 때가 있다. 어린 시절 할머니를 따라 초파일에 등을 들고 절에 가는 것이 마냥 즐거웠던 나는 기독교적 배경이 전혀 없는 가정에서 나오 자랐다. 그런 내가 어느 날 ‘일요일을 이렇게 의미 없이 보내도 되나? 교회에 출석해 볼까?’라는 자발적 동기에 의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강권적 간섭하심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도는 관심 밖의 일이었다. 그러다 공동체 목사님의 권유로 전도사역을 하게 되었다. 초창기 맞춤전도사역을 시작으로 전도콜센터와 전도학교에 이르기까지 지금껏 교회 활동이 늘 전도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전도가 어느덧 나의 신앙생활에 빠질 수 없는 큰 틀로 자리 잡았다.

사역을 하다보면 많은 성도들을 만난다. 학기를 함께 지내며 나누었던 성도들의 애뜻한 사연이 응답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새롭고 감사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아는 성도라면 전도하고 싶은 누군가가 반드시 그 마음에 있다.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준비된 복음이다.

나는 하나님이 온누리전도학교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지를 날마다 목격하고 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누군가를 전도하고야 마는 L 권사님, 자신의 병원에서 간호사들과 연합해서 내원 환자들을 전도하는 K 권사님, 직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 현장이라며 직장 내 불신자들의 영혼을 품고 몸으로 물질로

쉽 없이 섬기며 기어코 그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K 권사님, 진료 중에도 틈만 나면 환자들을 전도하고, 때로는 점심시간을 전도식사로 바꾸시는 J 장로님 등을 볼 때마다 내 영혼이 기쁨과 감사로 웅숭음쭙다.

좋은 물을 자주 마시면 물의 단맛을 알 수 있듯이 전도자만이 알 수 있는 영혼의 기이한 단맛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랴. 성도에게 있어 전도가 무엇일까? 주님은 “가치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건강하듯 너희는 내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다. 전도야말로 성도가 주님 안에 끊임없이 친밀하게 거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온누리전도학교는 전도하고 싶은 성도들이 대상자 앞에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접촉단계부터 반대 질문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단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사역자들이 모든 과정을 돌보고 돕는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전염병 사태로 온 교회가 제동이 걸렸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자의 사명인 전도가 멈춰야 할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어쩌면 이 환란의 때 더욱 전하기에 힘써야 한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상식화 되는 현실에서 온누리전도학교는 오히려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비전을 품었다. 영상강의와 모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소통하고 확장된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모략은 늘 있었고 그때마다 시대를 이끌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번에 서빙고, 양재, 부천 캠퍼스가 연합해서 영상으로 배우고, 영상으로 모이는 통합 1기 온누리전도학교를 9월 11일 개설한다. 통합된 1기 온누리전도학교 스태프들이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힘써 섬길 때 소망을 품고 온 훈련생들이 또 다른 전도자로 나이테를 긋고 자라며 하나님 나라의 큰 그루터기로 세상을 담을 것이다.

신앙에세이

하나님 음성 듣기와 분별하기



김정희 목사
(양재 온누리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목회자나 특별한 은사가 있는 이들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도 하나님 음성을 육신의 귀로 듣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인 귀로 들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거리에 비례한다. 이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예배, 기도, 말씀이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시간에 비례한다. 만남의 회수와 시간이 쌓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뚜렷

해진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태도와 비례한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두 아들에 대하여 당신의 음성을 전달했지만, 두 아들은 그저 나이든 아버지가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하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두 아들이 평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태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겸손하고도 진지한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넷째,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고요함과 비례한다. 아들이 다쳐서 이마가 찢여졌던 일이 있다.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상처부위를 소독하고 꿰매려 했는데 겁을 먹은 아들이 소리 지르며 울면서 온 몸으로 완강히 거부했다. 그때 의사선생님이 치료를 중단하고 얼마인 나에게 진료실 밖으로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진정시키고 잠잠해지면 다시 들어오라고 했다. 하나님의 음성도 이와 비슷하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문제에 손도 못 대게 하거나 분주할 때 주님은 우리가 잠잠해질 때

까지 기다리시고 계시실 뿐이다. 따라서 생각과 경험과 이론과 분주함을 멈추고,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만을 집중하며 바라보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다. 내가 듣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첫째, 성경이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성경에 비추어 확인해야 한다. 평소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 묵상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 음성분별의 성경적 틀을 가져야 한다. 둘째, 성령의 내적증거와 외적증거를 통한 분별이다. 성령의 내적증거는 평강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평강을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의 내적증거인 평강, 기쁨, 확신이 임하게 되는데, 이를 통

하여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게 된다. 성령의 외적증거도 함께 주시는데 외부 환경의 변화이다. 하나님은 외부 환경의 변화를 통해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음성을 확정하여 주신다. 셋째, 경건하고 지혜로운 영적 멘토를 통한 분별이다. 경건하고 지혜로운 멘토는 오랜 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인생을 지나왔기에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단계의 분별과정을 거치더라도 때로는 실수와 착각이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 경험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매일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 그 연습이 하나님 음성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말씀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계 3:20).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 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 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8~10절).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 놀랍습니다. 바벨론에서 자라서 페르시아의 관료로 일하는 사람의 기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에서 율법 교육을 오랫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확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 역사의 문제와 해결책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성경적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전해 준 말씀을 전체적으로 깊이 묵상하며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편리하고 찾아보기 좋은 책으로 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족이나 두루마리 형태 혹은 그것조차 없어 몇 개의 조각조각 된 사본만이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일부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오해할 수 있고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 말씀을 해석해야만 해석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음으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그 가운데 흩으실 것이요 그러다 동시에 다시 돌아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하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처참하고 절망적인 소식들, 한국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 하는 이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소망을 가져야만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주장하며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잘 지키는 자들은 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지만,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을 때는 징벌을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심판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 시대 우리도 경험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모임이 취소되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기둥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인 목사는 히틀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쫓겨나고 나치에 끌려가 고문당하고 또 언제 감옥으로 끌려갈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 속에서 목회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목회하던 슈투트가르트교회는 폭격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집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집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집과 교회 예배당이 폭격으로 무너졌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틸리케는 주일마다 빠짐없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온통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기둥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늘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기둥입니다.”

“주의 종의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11절).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반복되어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종’입니다. 여덟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의 종이었지만 그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참된 자녀는 종으로서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자녀로서 주의 종 일을 감당하는 것과 세상적인 종의 관점에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 느헤미야의 정체성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고, 하나님께 종의 기도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점점 더 자발적이 됩니다. 그의 기도는 슬픔으로 시작해서 헌신의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단지 통곡하는 기도가 아니라 비전을 바라보는 기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 쓰임 받는 것이 때로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모든 사람들, 상황, 필요를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해서 사는 것만큼 감격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흥미진진한 삶이 없습니다. 자원하여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격스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기도로 시작해서 참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기도로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종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기도로 나아가는 영혼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찢고 슬퍼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혼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지에서 온 편지

늘 저희와 함께 해 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안부인사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 이제는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현재 감염자 수가 1만6천 명이 넘어섰고, 하루에 약 2~3백 명 가량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이곳 사회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온누리교회에서 재난지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공동체 50가정과 지역공동체 100가정에 쌀과 기름, 손소독제,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복음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번 나눔을 통해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에덴교회가 지역에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하는 교회라는 인상을 줄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현지 아이들이 학교에 가



지 못한 채 집에서 TV나 라디오로 수업을 하였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인터넷 사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국가에서 학교에 모이는 대신 TV나 라디오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방학을 했는데 아이들도 성도들도 몇 개월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동물원으로 함께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민이 되었지만, 안전수칙을 지키

면서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웬 동물원인가 하시겠지만, 사실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동물원이 아니면 동물들을 직접 볼 기회가 없습니다. 또한 입장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비용과 점심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병보 선교사는 현지 아이들을 위한 찬양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어드벤처 찬양을 불어로 번역해서 음반을 만들고 현지 교회에 보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번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곳에는 아이들을 위한 찬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린이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지만, 구주 예수님만 바라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지기를, 에덴교회 성도들과 아이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기를, 아이들을 위한 찬양 번역과 음반녹음이 잘 진행되기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 김빌립, 임병보 선교사(코트디부아르)

붓소해섭 시즌 3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붓소해섭 채널

**붓소해섭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



1.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



2. 기다리는 거리 전도? 찾아가는 개인 전도!



3. <붓소해섭> 공유로 시작하는 미디어 선교!



< YouTube 붓소해섭 채널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응원의 댓글과 기도로 함께해주세요 >

*CGNTV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